

사랑의 작은 천사

이승만/모현 호스피스 유가족

“나 무가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 두지 않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해도 부모가 이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머니가 하느님 품으로 가신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지난 92년 단란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 가정에 “자궁암 말기로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어머니에 대한 절망적인 의사의 진단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다. “병은 하나이지만 약은 수백종”이라는 말처럼 절망에 부딪힌 우리 가족은 좋은 약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전국을 떠돌아다니지 않았다. 삶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하셨던 어머니는 침, 한약, 수술, 방사선 치료들을 초인적인 힘으로 받아들이셨고 기적처럼 5년 이상을 병마와 싸우셨다.

지난 97년 11월 4일 지병이 악화되어 응급 헬기로 삼성의료원에 어머니를 모셨지만 통증 치료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오랜 병간호로 심신이 지치실 대로 지치신 아버님을 모시고 아파트에서 같이 기거하게 된 후 부모님과 집사람 사이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다.

병에 대한 완치가 보장되지 않은 환자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외로워하시는 아버님, 대소변 및 환자 수발에 매달려야 하는 집사람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병문안차 상경하는 친척들의 별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가족들은 서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연히 삼성의료원 의사를 통하여 모현 호스피스 수녀님들을 소개 받았다. 불교를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수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게만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 눈의 메리 수녀님은 이국인이지만, 인종의 차원을 떠난 봉사의 마음으로, 굳은 아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살아 계실 때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가볍다”는 말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셨다. 죽음을 부정하며 “살고 싶다”고만 절규하시는 어머니를 “어서 빨리 고통 없고 편안한 하느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로사 수녀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전 가족이 하느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손등과 두 볼에 동상 흔적이 있는 안젤라 수녀님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품에 안고 나서 지난날의 당신 어머니품을 회상하시는 그런 맑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였다.

청빈한 옷차림,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을 가진 수녀님들은, 사관학교 졸업 후 조종사로서 내 앞만 보고 살아온 나에게 많은 충격과 신선함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

는 여유와 깨우침을 주셨다. 지금 나는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변의 이웃도 돌아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 같은 욕심이 끊임없이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는 원인인데”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다.

어머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살펴 주시고 어머님과 전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수녀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늘진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사랑의 작은 천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란다.

